

1~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내달 20일부터 시행

하루 4시간 일하고 반차 쓸 때 30분 휴식 없이 퇴근
채임하면 대지급금, 임금 보장 최종 3개월→6개월
안전보건규칙 위반·산재 은폐 신고 500만 원 포상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단기 육아휴직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확대,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등을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일은 8월20일이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려는 노동자다.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 사유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기 육아휴직 사용하고 1주 또는 2주 단위로 환산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노동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4시간 근무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면제를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 바뀐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근무는 4시간만 했지만 원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사업장에 30분 더 머무는 불편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하루 4시간 근무자가 늘고 있는 점을 제도 개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퇴직급여 등은 기존과 같이 최종 3년분이 지급 범위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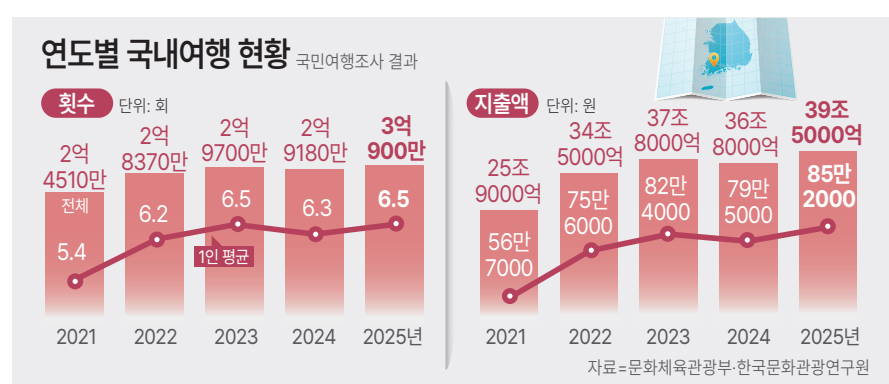
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노동자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지원

되직급여 체불 범죄도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지원

제한 대상이었으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업주 책임과 국민 감시 기능이 함께 강화된다. 하반기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 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한 경우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무거워진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수사·재판 목적으로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산업재해 원인조사 보고서도 공개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주경준 기자 gjuu@skyedaily.com

국내여행 훈풍… 1분기 여행 횟수 '역대급'

지난해 반등한 국내여행이 올해 1분기에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년 국민여행조사 1분기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 경험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6%p 증가한 54.4%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이후 역대 최고치이며 특히 올해 2월 경험률은 57.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p 급증했다.
여행 횟수, 여행일 수, 지출액 역시 지난해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여행 횟수는 8513만8000회로 작년 동기 대비 16.7%p 급증했다. 분기 기준 8000만 대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이전 최고치는 2025년 4분기에 집계된 7809만3000회였다.
경험률에 이어 여행 횟수도 2월에 치솟았다. 2월 여행 횟수는 3043만9000회로 지난해 2월(2285만7000회)보다 33.2% 증가했다. 2월 여행 증가는 설날 연휴(2월14일~18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18일은 수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연차 2일을 활용해 최대 9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날 연휴는 1월25일부터 30일까지였기에 1월 여행 횟수는 올해보다 지난해가 76만회 더 많았다.
지난해 국내 여행 지출액은 39조5410억



여행 8513만 회 16.7% 급증… 경험률 54%↑
지출액 10조 돌파… 월별 모두 3조 웃돌아

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3년(37조816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지출액은 10조256억 원으로 국내 여행 지출액 기록을 다시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1분기 중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월별로 봐도 1~3월 모두 3조 원대를 기록한 것 또한 사상 처음이다.
이동수단은 지난해에 이어 자가용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1분기는 84.8%로 지난해 4분기(86.1%)보다 하락했다. 반면 지하철(3.8%→5%), 버스(2.9%→3.7%), 철도(2.5%→2.7%) 등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항공기 이용률은 4.3%에서 3.9%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1월 4.4%였던 항공기 이용률은 2월 3.7%, 3월 3.6%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유류할증료 상승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식관광은 올해 여행지에서의 활동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자연 및 풍경 감상(73.9%)과의 격차를 5.9%p로 줄인 음식관광(68%)은 올해 1월이 되자마자 79.5%를 달성하며 자연 및 풍경감상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2월에는 80.4%로 처음으로 80%를 달성하기도 했다. 가족·친자·친구 방문은 2월에 34%로 급증하면서 2월 여행 폭증의 이유가 설날 연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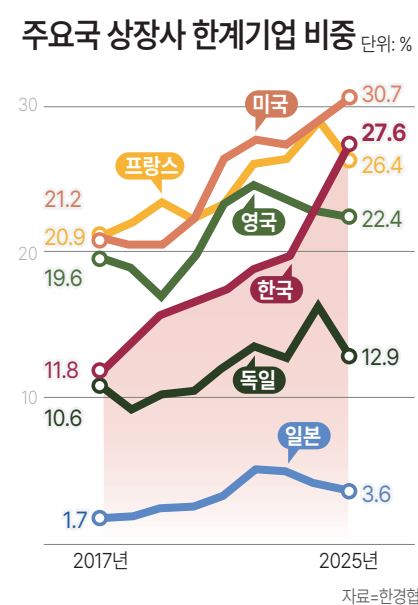
이영훈 기자 yhlee@skyedaily.com

韓 상장사 한계기업 27.6%… 증가속도 주요국 1위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 33%
미국 이어 주요국 두 번째

한국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0일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와 한국 상장사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한계기업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이 2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과 영업외손익을 포함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기업으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경우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1.8%에서 2025년 27.6%로 15.8%p 상승했다. 조사 대상 주요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2%에서 30.7%로 9.5%p 높아졌다. 한국의 증가 폭은 미국보다 6.3%p 더 컸다.
반면 프랑스는 20.9%에서 26.4%로 5.5%p, 영국은 19.6%에서 22.4%로 2.8%p, 독일은 10.6%에서 12.9%로 2.3%p, 일본은 1.7%에서 3.6%로 1.9%p 오르는 데 그쳤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의 취약성이 더 뚜렷했다. 2025년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32.6%로 코스피 16.7%의 약 두 배였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가 폭도 코스닥이



컸다. 코스피 한계기업 비중은 9.6%에서 16.7%로 7.1%p 오른 반면 코스닥은 13.1%에서 32.6%로 19.5%p 상승했다. 증가 폭 기준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의 약 2.7배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8%, 도매 및 소매업 36.4%, 정보통신업 32.5%, 제조업 25.6%, 건설업 23.6% 순이었다.
2017년 대비 증가 폭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가장 컸다. 이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6.8%에서 36.8%로 30.0%p 뛰었다.

정보통신업은 12.9%에서 32.5%로 19.6%p 상승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7.8%에서 36.4%로 18.6%p, 제조업은 11.2%에서 25.6%로 14.4%p 높아졌다.
운수 및 창고업은 7.7%에서 11.1%로 3.4%p,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20.0%에서 21.1%로 1.1%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성장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업과 전문서비스업에서도 수익성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계기업의 비중수 자체로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25년 기준 미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30.7%, 한국은 27.6%, 프랑스는 26.4% 순이었다.
한계기업으로 고착되기 전 단계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시적 한계기업은 당해 연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다.
2025년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43.9%로 미국 44.0%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였다. 이어 프랑스 40.1%, 영국 36.7%, 독일 27.0%, 일본 9.8% 순이다.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30.4%에서 2025년 43.9%로 13.5%p 상승한 이후 2023년 41.8%, 2024년 43.7%, 2025년 43.9%로 3년 연속 40%대를 이어갔다.
주경준 기자 gjuu@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르네상스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